



한재훈

뾰아 읽는 『논어』 강독

- 배움(學)이란 무엇인가?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 뽑아 읽는 『논어』 강독 -배움(學)이란 무엇인가

공자가 말한 군자의 삶과 태도를 고찰한다. 배움과 생각함의 관계를 다뤄보고 논어 곳곳에 등장하는 호학하는 자세에 동참해보자.

## 학습 목표

- 공자가 말한 군자의 삶의 태도
- 논어의 곳곳에 등장하는 호학하는 자세
- 배움과 생각함의 관계

## 강사 소개

- **한재훈**

한학자. 독립서당 훈장. 동양철학박사.  
저서 『교사, 대안의 길을 묻다』(2009)

강의 보기



- 제목 : 뽑아 읽는 『논어』 강독 - 배움(學)이란 무엇인가
- 강사 : 한재훈 (한학자)
- 구성 : 17분

## 강의 노트

### 食無求飽, 居無求安(식무구포 거무구안)

-『논어(論語)』, <학이(學而)편>

食無求飽(식무구포)는 ‘배불리 먹지 말라’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

**居無求安(거무구안)** : 거처하는 데 편안하기를 구함이 없다.

과연 ‘편안함’에 정도가 있을까?

인간의 욕심이 무한하듯 원하는 바에는 그 적절한 정도가 없다.

### 食無求飽(식무구포)

군자(君子)는 의식주에서 단순히 생리적인 배부름과 편안함을 원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飽 - 배부를 포”, “安 - 편안 안” → 배부름과 편안함을 바라는 것은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호학(好學) : 배움(학문)을 좋아함**

## 학(學)의 진정한 의미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와 성장

군자(君子)는 먹는 데 배부르기를 구함이 없고 거처하는 데 편안하기를 구함이 없다.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군자식무구포, 거무구안)

## 호학(好學)의 자세

군자는 단순히 배부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지 않아야 호학(好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공자는 생각했다.

학(學)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한다면 배부름과 편안함을 버려야 한다.

## 事(일 사)

일은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일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일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 敏(민첩할 민)

나 아닌 누군가가 이 일(事)을 맡았을 때 남에게 더욱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 그 관계는 맨 먼저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 말(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 ①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칼이 되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온정을 나눌 수도 있다.
- ② 말은 내뱉기 쉬우나 실천은 어려운 것이므로, 믿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



## 민어사이신어언 (敏於事而慎於言)

: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간다.

→ 일상에서 군자의 삶의 태도

## 就有道而正焉(취유도이정언)

: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바로 잡는다.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살핀다.

## 도(道)는 어디에 있는가?

① 스승

② 책

## 就有道而正焉(취유도이정언)

스승과 책을 통해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만나고, 새로 알게 된 것들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수정해 나간다.

## 공자가 말하는 배움(學)

안락함을 버리고 일상에서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며, 그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도를 향해 더 나아가는 것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속이는 짓이요,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롭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논어』 <위정(爲政)편>

배움은 곧 새로운 것을 만나는 과정. 그러나 그 만남이 곧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새로운 것은 아직 완전한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은 새로운 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思(생각할 사)** : 무엇이 정말 그러한지 검증하고, 정리하여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을 검토하고 성찰하고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

### 學而不思則罔(학이불사즉망)

배우면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진짜 옳은 것인지 검토(思)해보지 않았으므로 남을 속이는 것과 같다.

### 思而不學則殆(사이불학즉태)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롭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성이나 천왕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생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만 가능하다.

생각은 맷돌과 같아서 넣어주는 것만 나온다.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을 때는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답을 찾으려 한다.

→ 제한된 것들로만 구성하기 시작한다.

→ 구성한 것의 자기 완결성을 추구한다.

- 그것을 믿게 된다.
- 믿은 것을 주장하고 강요한다.

배움(學)은 새로운 것을 만나는 과정이므로 자기 완결성을 계속 깨뜨리게 한다.

배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배워야 한다. 즉 배움(學)과 생각(思)은 함께 가야 한다.

내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생각해보았으나 더해지는 것이 없었으니,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吾嘗終日不食，終夜不寢，以思，無益，不如學也。

(오상종일불식, 종야불침, 이사, 불익, 불여학야)

-『논어』 <위령공(衛靈公)편>

## 益(더할 익)

배움은 새로운 것이 더해지는 익(益)이다.

배움 없이 생각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생각만으로는 얻을 것이 없으니 따라서 배움이 우선하고 생각(思)이 뒤따라야 한다.

배움은 미치지 못한 것처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라.

學如不及, 猶恐失之.(학여불급, 유공실지)

-『논어』〈태백(泰伯)편〉

배워야 할것은 무궁히 많으나 나는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이미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한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 학습 요약

- 군자는 일신의 안락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매사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 군자의 호학은 스승과 책을 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삼아 배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자세이다.
- 배움이 선행하고 성찰이 뒤따라야 진정한 학문을 완성한다.
- 학문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듯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인문 퀴즈

1. 이 책은 유교의 경전으로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이 담긴 어록이다. 공자라는 인물의 사상과 행동을 보여주며, 중국 최초의 어록(語錄)이기도 하다. 다음 중 이 책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은?

(1) 『맹자』 (2) 『주례』 (3) 『서경』 (4) 『논어』

2. 공자는 학문을 좋아하는 호학(好學)의 자세에서 “식무구포 거 무구안(食無求飽, 居無求安)”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내세운 군자(君子)의 자세와 그 뜻으로 가장 바른 것은 무엇인가?

- (1)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함 가운데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
- (2)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3)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함을 경멸해야 호학(好學)으로 나아갈 수 있다.
- (4) 군자는 학문을 추구하는 동시에 배부름과 편안함을 도모해야 한다.



## 인문 퀴즈

3. 다음은 공자의『논어』에 나오는 말씀중 하나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말이 마르게 짝지어진 것은?

A. 배우면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진짜 옳은 것인지 검토(思)해보지 않았으므로 남을 속이는 것과 같다.

B. 생각(思)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롭다.

(1) A: 思而不學則殆(사이불학즉태)

B: 學而不思則罔(학이불사즉망)

(2) A: 學如不及(학여불급)

B: 猶恐失之(유공실지)

(3) A: 學而不思則罔(학이불사즉망)

B: 思而不學則殆(사이불학즉태)

(4) A: 猶恐失之(유공실지)

B: 學如不及(학여불급)

**정답**

1. (4) 2.(2) 3.(3)

2. (2) 공자의 식무구포 거무구안(食無求飽, 居無求安) 이라는 말은 삶을 사는 데 있어 배부름과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큰 뜻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주)아트앤스터디

뽑아 읽는 『논어』 강독 - 배움(學)이란 무엇인가

강사: 한재훈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http://www.artnstudy.com)

ArtnStudy.com